

單発音読クリニック 上演6 死にたい時には遺言状を書こう

“만약 당신의 삶이 3 일밖에 남지 않았다면...?”

유언장 사이트 운영자 이성희 씨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

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. 그리고 유언장을 써보라고 권유한다.

스스로 ‘유언장 은행장’이라 부르는 이 씨는 올 초부터 유언장을

작성해서 보관해 두는 인터넷 서비스 유언장닷컴을 운영하고 있다.

8 만명이 넘는 사람이 이곳을 다녀갔고 이 중 2000 명 가까이 비공개

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.